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1 당회: 4월 정기 당회가 1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 Entertainment Book 판매: 2남 선교회에서 Entertainment Book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65이고, 현금이나, Cheque, Credit Card로 결제 가능합니다. 한 부당 $13이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박덕철 집사나 이정인 집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3 감사: 밀알 장애인들에게 식사로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5 세례자: 손상섭, 이수지, 이지수, 이조은, 세례증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6 입교: 전은지, 김진아

7 참여: 한인의 날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도 먹거리 판매에 참여합니다.
장소:노스쇼어 이벤트센터(Silverfield and Argus Place entrances, Wairau Valley)
시간: 2012년 4월 28일(토) 오전 10시~밤 10시

8 신청: 경건 훈련을 위한 생명의 삶 5월호 책 신청을 받습니다.

9 유아세례: 5월 6일 어린이 주일에 실시합니다. 신청 바랍니다.

10 월례회: 4남, 1여 선교회가 월례회가 친교실, 유아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해외 선교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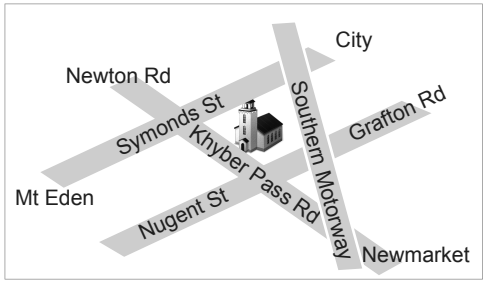
국내 선교

밀알장애우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4월 22일

14권 17호

교회창립 1999/07/14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뉴질랜드 살아가기 9개월째 - 이복연 집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곳으로 왔다.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만큼 큰 빽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신 뉴질랜드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던 날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 길거리의 작은 이정표를 보며 집을 찾아다닐 수 있고 비슷하던 집들도 제각각 다름이 눈에 보일쯤 마음에 병이 들어온 것이다. 더듬이를 머리끝까지 세우지 않아도 길거리를 찾아다닐 수 있게 되어서일까? 여기저기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몇 마디 하는 영어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일까? 어느덧 감사의 언어가 사라져 가는 나를 본다.

입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정작 웃질 못하는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CGN기독교 방송을 보며 또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내 마음을 추스르던 어느 날 전화가 울린다. 이곳에 와서 알게 된 친구 같은 분이라 나는 쉴 새 없이 나의 허전한 마음을 그에게 넋두리했다. 영어공부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더 안 들리는 것 같다. 내 머리가 정말 나쁜 것 같다고 투덜거리는 내 말을 잠자코 듣던 그녀가 "어제 한 공부가 오늘 보면 또 새롭지요. 매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죠." 라며 맞장구를 치며 "그래도 공부해야 합니다. 몇 달 뒤 그게 바탕이 되어주거든요.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공부해야 꺼내 쓸게 생긴답니다. 이 나라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고 한다. 몇 마디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간 의기소침해 늘어져 있던 나에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 한번에 정리될 수 있는 말이었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간 내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생각났다. 열심히 물건을 실어다가 주신 집사님. 집을 알아봐 주신 집사님. 남편의 일자리를 구해주신 집사님, 이것저것 물건을 나눠주셨던 집사님들, 항상 교회에서 환하게 웃어주시던 집사님들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것임을 기도 속에서 더 크게 깨닫게 되었다. 가슴속에서 힘이 불끈 솟아오른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오늘을 이겨낼 힘도 감사의 기도이고, 내일을 기쁘게 살 힘도 감사의 기도뿐인 것을 새삼 더 크게 느끼며 환하게 웃어본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요한복음 6:44-45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7장	다함께
※ 성시교독	31. 시편 68편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68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8:9-25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명품 신앙인	이태한목사
찬송	545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김정민 집사
성경봉독 / 약 1:23-27
설교 / 경건은…
/ 심창진 목사
찬송 / 거룩하신 하나님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김지혜 집사
성경 / 삿 9:1-6
설교 / 아비멜렉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80장
주기도 / 다함께

⊙ 4월 교회일지

종려주일:
4월 1일 (주일)
공동체 주관 예배:
4월 4일 (수)
부활주일: 세례 및 성찬
4월 8일 (주일)
경건 훈련:
4월 18, 19일 (수, 목)
선교예배:
4월 25일 (수)

⊙ 4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추미선/이경자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수요기도:	김지혜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전인우 집사
다음 주일 1부: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2부:	방명아 집사
5월 2일 수요기도:	김윤숙 집사
5월 2일 애찬기도:	장연식 집사
5월 6일 1부:	고성일 집사
5월 6일 2부:	김현주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공평하고 건전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섬기도록. 뉴질랜드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취업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심각한 주택난이 해결되어 서민들이 렌트 집을 구하는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2. 교회: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교역자들에게 충만함과 통찰력을, 참여하는 성도들은 열정과 꾸준함으로 신앙에 진보가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생들이 새로운 각오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성도들의 생업이 형통하도록.

3. 국외: 키르기스스탄의 새 정부가 200명 이상의 교회만 등록하게 하여 재등록을 어렵게 하고 선교사로 등록한 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데 종교법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는 모든 시도가 멈추고, 교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HELP IN TIME OF NEED

하나님은 우리의삶 속에서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Comfort in Time of Loneliness 1 – 외로움에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Psalm23 [시편23장] A psalm of David [다윗의 노래]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everything I need.
야회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He lets me rest in green meadows; he leads me beside peaceful streams.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He renews my strength. He guides me along right paths, bringing honor to his name.
지쳤던 이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Even when I walk through the dark valley of death, I will not be afraid, for you are close beside me. Your rod and your staff protect and comfort me.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You prepare a feast for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welcome me as a guest, anointing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with blessings.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 주시고,기름부어 내 머리에 발라 주시니, 내잔이 넘치옵니다.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 경덕현 집사 제공